

'J기업' 영빈관 계획 설계

Schematic Design for 'J Company' Recep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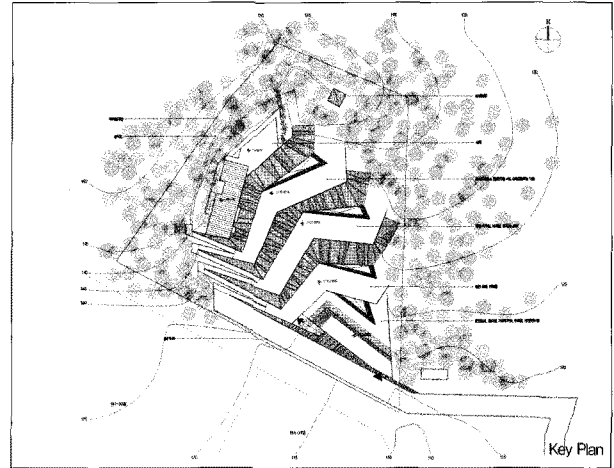


박인수 | 정회원,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by Park, In-soo, KIRA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희망제작소 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Location	Gyeonggi-do Gwangju-si
Site Area	5,833.06 smp
Building Area	171.96 smp
Gross Floor Area	2,248.33 smp
Building to Land Ratio	2.95 %
Floor Area Ratio	2.49 %
Structure	R.C+S.C
Building Scope	B2,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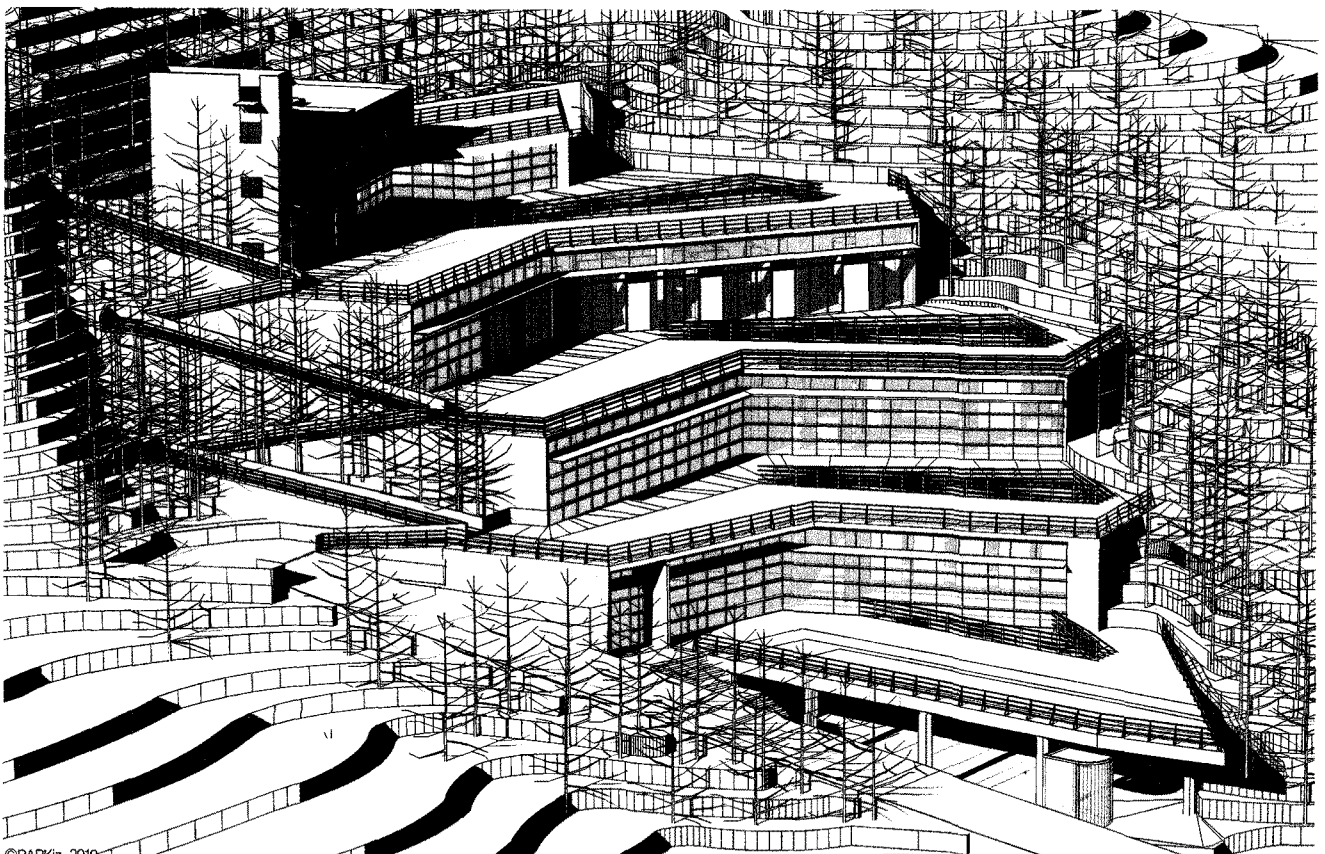


층별면적개요

115.0 레벨	709.65 sqm	주차장,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120.0 레벨	358.66 sqm	대회의실, 리셉션
125.0 레벨	434.01 sqm	소회의실, 집무실
130.0 레벨	361.13 sqm	게스트 하우스 4실
135.0 레벨	239.8 sqm	현관, 주방, 식당, 거실
138.5 레벨	145.08 sqm	방, 서재, 화장실 등

면적계 2,248.33 sqm

본 계획안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J기업'의 영빈관 계획안이다. 사택과 기숙사, 집무실의 기능이 주 기능으로, 기업의 각종 행사를 유치, 진행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본 코너가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을 다루는 것이므로, 물론 이 계획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근자에 사무실을 새로 개업한 본인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쉬운 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시장에서도 발주와 계약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일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안되길 기대한다.



영빈관의 기획의도

본 계획안은 건축주가 국제적인 마케팅과 연구진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간 호텔 등을 이용하며 진행하였던 행사와 손님맞이 등을 회사의 전용공간을 통해 치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선, 관련된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을 위한 편안한 숙소와 인락한 공간들이 매우 절실한 형편이었다. 특히 국내외의 바이어들과의 파티, 회사내부의 행사 등을 위한 기업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의 제안이 필수적이었고, 기업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구현하는 영빈관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가 제안의 기회를 갖았고, 이후 5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실현되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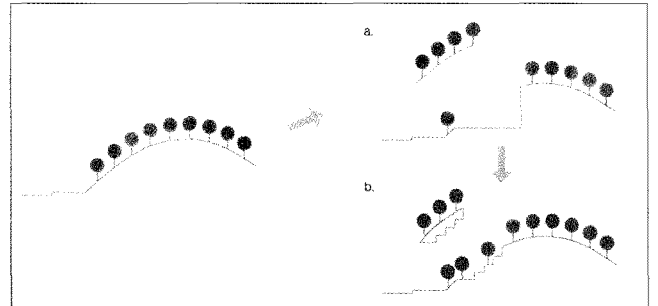
대지

대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광주지역이 그러하듯, 본 대지도 마구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다. 사실 경사도도 상당히 하여(건축이 되는 부분만 약 20m 차이) 건축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첫 인상이었지만,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건축할 수 있는 부지였다. 향후 광주시는 종합적인 계획과 개발방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규상 되고 안되고의 차원을 넘어야 한다. 대지는 무엇보다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물리적 개발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발도구와 법률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대지는 현재 수목등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미 많은 부분을 절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의 개발된 부지를 제외하곤, 자연과 접하게 된다. 어떻게 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자연스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초기 현장 방문 시 들었던 생각이었고, 토목분야의 대지 개발 방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토목에서 진행하여, 그 뿌리를 변경할 수 없어 건축 계획안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이 대지에는 특별한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안하게 되었고, 산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자연과 잘 엮이는 계획안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자연이 가장 큰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지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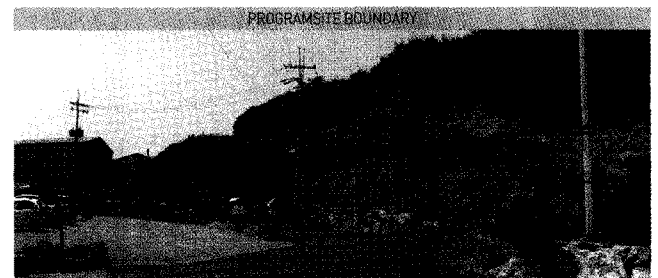
대지를 잘 이용하고, 건축을 배치하기 위해선, 원지형에 대한 스터디가 매우 절실하였다. 수차례의 모델링을 통해, 지형의 움직임에 파악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대지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대지는 가장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의 지형을 갖고 있었고, 상당히 규칙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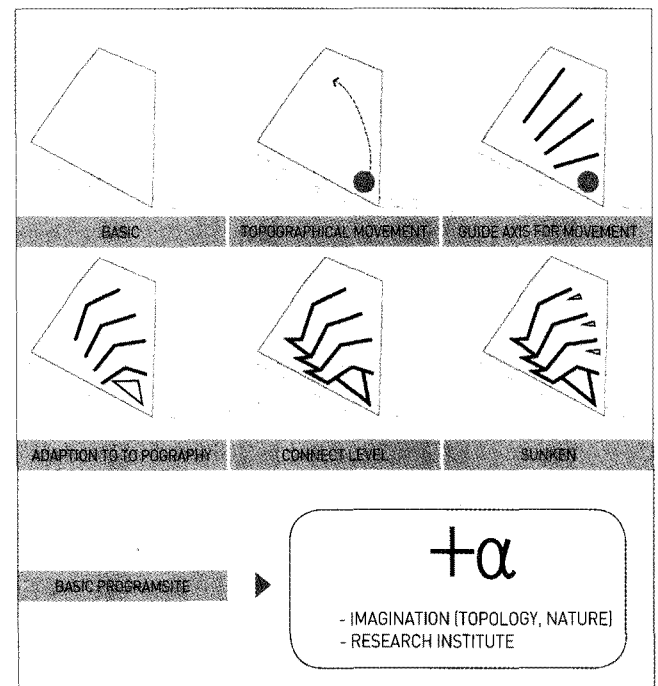
영빈관 대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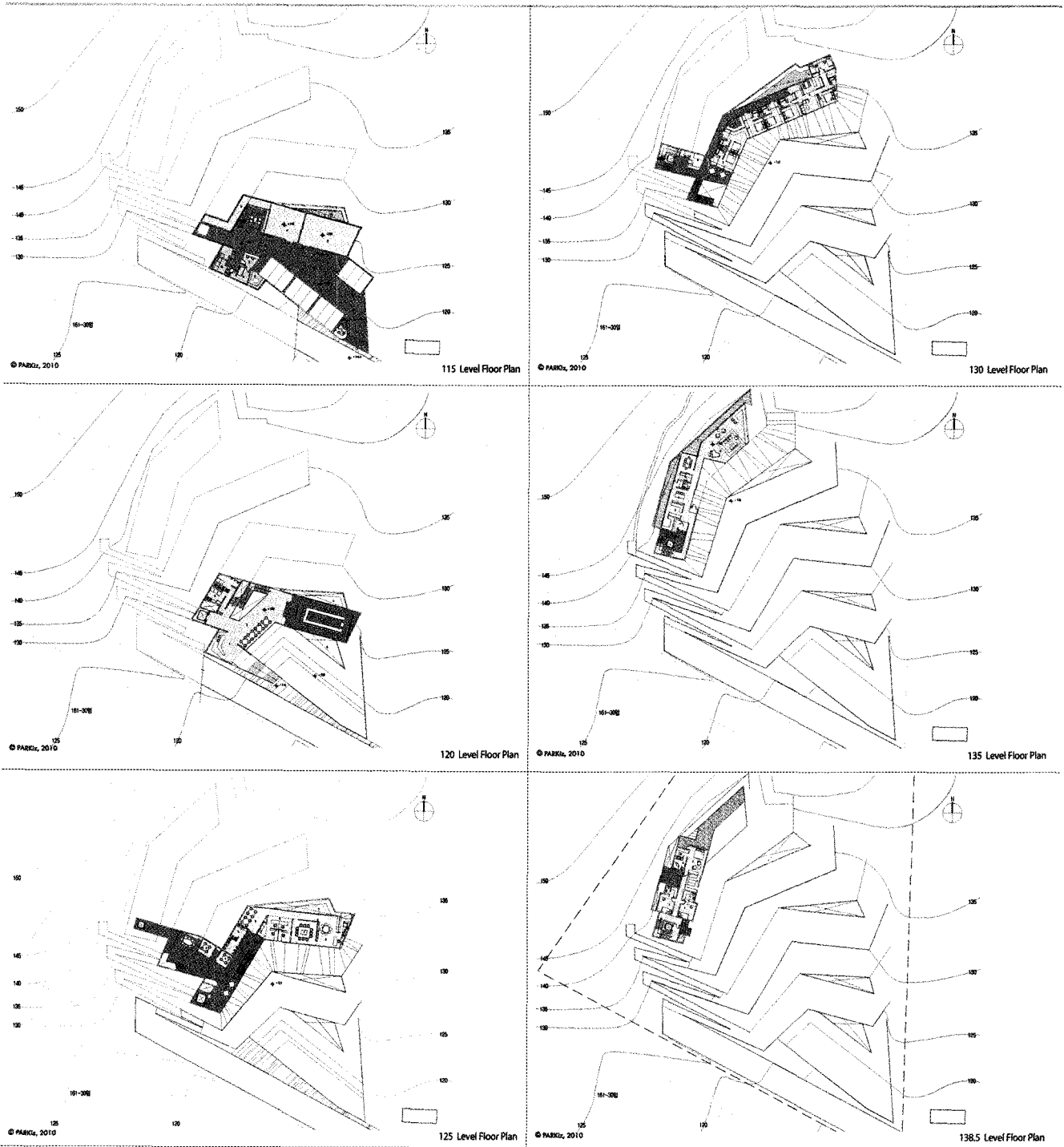
대지위치



현장사진



COMPANY GUEST HOUSE + 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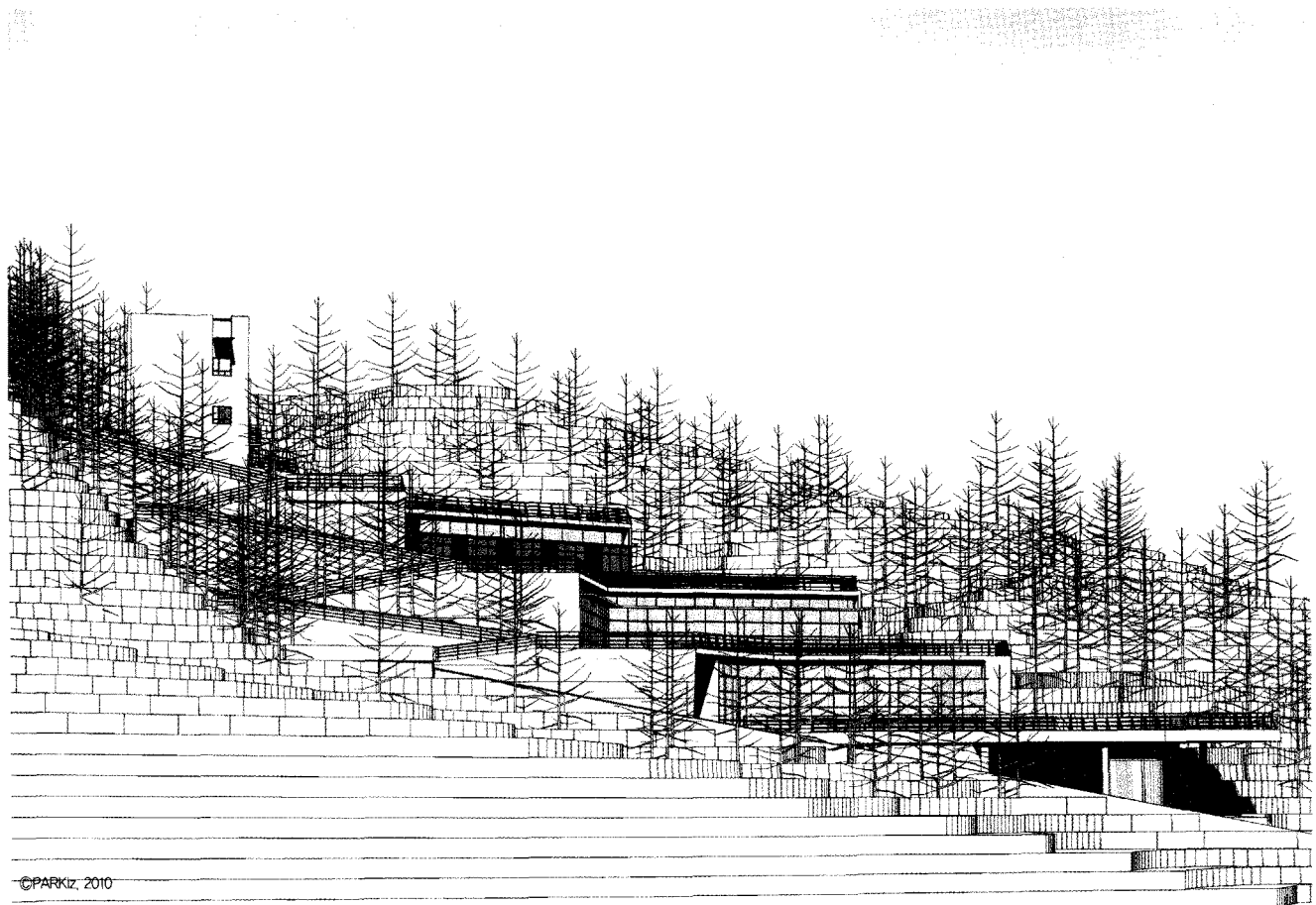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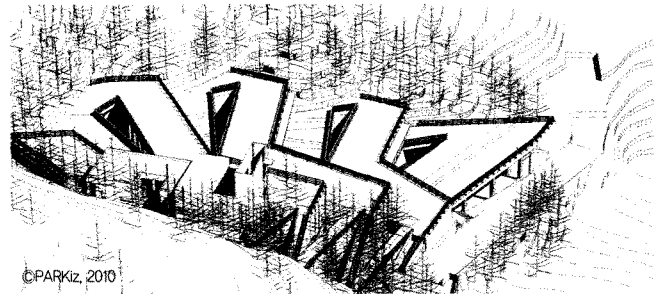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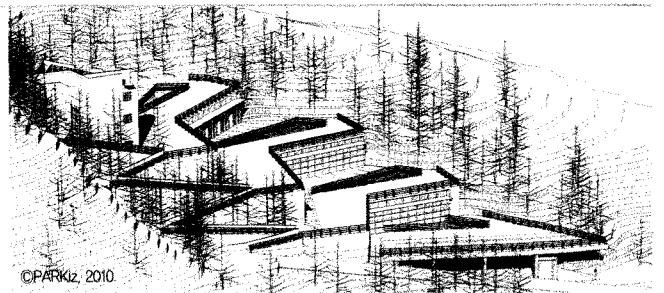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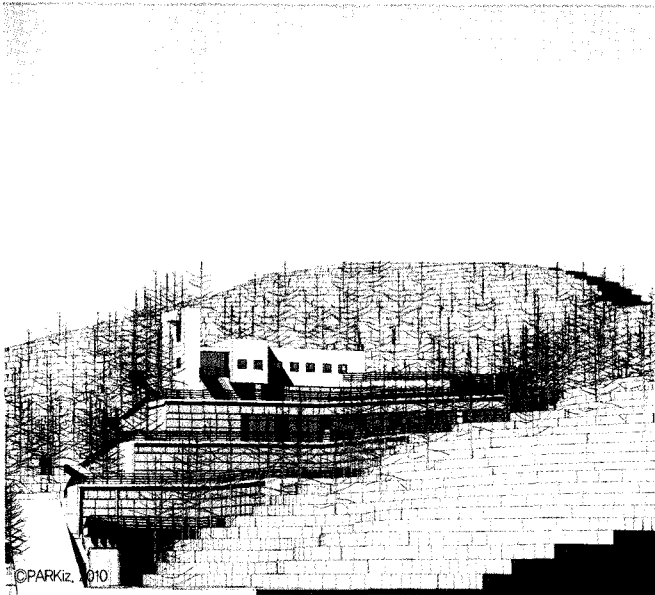
전면에 국도의 방향에 따라 공간이 열리는 것도 본 대지에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었고, 길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에 우선했던 것은 기존 지형을 복원하는 문제였고, 지형에 건축이 들어가는 형상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여야 했는데, 지형과 경사도를 이용하여 건물의 선형을 테라스형식으로 구성하고 대지의 경사도상 차량은 가장 하부에 머물도록 하였다. 레벨 조건상 크게 4개의 레벨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 레벨은 기능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각각 특성 있는 레벨의 사용을 도모하였다.

건축 및 배치선형은 지형의 움직임을 단순한 직선의 조합으로 치환해서 적용하였다. 대지가 입체적으로 돌아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L'형 건물이 돌아 올라가도록 하였다. 각 레벨과 건축의 사이에는 긴 선권을 만들어, 내부 환경과 외부 공간 사용의 경계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a'; 증강가치

본 계획안은 크게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부분으로 여기에는 게스트들을 위한 주방과 식당,



로비 등과 함께 세탁 등의 서비스시설이 있다.

각 방은 각자의 테라스를 갖게 되고,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집무실로 기업대표의 사무실과 응접실, 회의실, 비서실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사택으로, 가장 검소하고, 소박한 규모를 선호하였다. 주택은 인근에서 열릴 프로그램에 따라 프라이빗한 부분과 퍼블릭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 계획안을 위한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 외에 대지의 형상과 자연조건 자체를 프로그램화하여, 건축의 프로그램과 서로 엮어 조직화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지의 각 레벨이 프로그램화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맨 아래 부분의 데크는 게스트 하우스 전용 마당으로 만들어 건축과 일체화 되도록 하였고, 다음 높이의 데크는 집무실과 연계하도록 하여, 회사 공적인 행사나 산책등이 이뤄지도록 배려하였고, 그 다음 높이의 데크는 사택과 연계되도록 하여, 개인적인 행사나 가족 중심적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의 프로그램에 더해 지형의 잠재적 가치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제안했던 디자인의 주요 이슈이다. 건축주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형의 가능성을 더하는 것으로, 가치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증강가치(augmented value)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